

수능 가채점 분석... 주요 대학 지원가능 점수

전남대 의예과 387점 조선대 의예과 386점 광주교육대 362점 예상

서울대 인문 388·자연 374점

■ 광주 주요대학 지원가능 점수

(광주진학부장 협의회·원점수기준)

대학	학과	점수
전남대	의예과	387
	영어교육과	365
	수의예과	365
전남대	국어교육과	362
	수학교육과	360
	경영학부	355
조선대	간호학과	352
	의예과	386
	간호학과	345
광주교육대	수학교육	328
	광주과기원	378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지원하려면 인문계열은 388점, 자연계열은 374점은 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대 의예과는 387점, 조선대 의예과는 386점, 광주교육대는 362점이 지원가능 점수대로 예상됐다. <관련기사 7면>
16일 광주시교육청 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회장 문형수·고려고 진학부장)가 광주지역 고교의 올해 대학수능능력시험 가채점을 분석한 결과, 국어는 A형·B형 모두 작년보다 어려웠다. 반면 수학 A형은 다소 쉬웠고, B형은 매우 쉬웠다. 영어는 작년 B형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상위권의 체감 난이도는 쉬웠다. 탐구는 과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작년에 비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는 서울대의 경우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 400점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388점(서울대식 점수 387.8점, 국어100+수학120+영어100+탐구80) 이상, 자연계열은 374점(376.4점) 이상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400점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378점 내외, 자연계열은 371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의 경영학부 등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는 390점 이상, 자연계열은 380점대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는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인 영어교육학과 365점, 국어교육과 362점, 경영학부 355점 등이다. 인문계열에 지원하려면 최소 327점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387점, 수의예과 365점, 수학교육과 360점, 간호학과 352점이다. 수학B형을 지정한 학과의 경우 314점 내외에서 하위권 학과의 지원이 가능할 것

으로 추정된다.

조선대는 영어교육과·국어교육과 등 인문계열 상위권 학과는 330점대에서 지원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의예과는 386점, 간호학과는 345점, 수학교육과 등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는 328점대가 지원선이다. 인문계열은 최소 266점, 자연계열은 255점은 받아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교육대는 여학생의 경우 363점, 남학생은 362점은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수학B형 응시자 기준으로 378점이 합격선이다. 문형수 회장은 "올해 수능은 그동안 변별력을 주도했던 수학에서 변별력이 약화됐고, 반면 국어에서 변별력이 강화됐다"며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은 중상위권 수험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능성적이 발표되면 표준점수·백분위 점수 등으로 환산, 정확한 지원선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전기대학원 신입생 모집
12월 1일(월)~9일(화)
문의: 062)605-1115

‘영원한 소녀’ 김자옥 별세 ▶19면



광주FC, 헬핀지 4강PO 진출 ▶20면



참사 현장 지난 15일 밤 담양군 대덕면 황도읍집펜션 내 바비큐 파티장에서 불이나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진압과 시신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침몰...장성요양병원 화재...홍도 유람선 좌초 이어 또...

담양 펜션 화재 4명 사망·6명 부상

나주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대학생·졸업생 참변

은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담양군 대덕면 펜션 화재 사고로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에 이어 장성요양병원 화재,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안전 불감증'을 탓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안전은 여전히 뒷전에 밀리는 등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지난 15일 밤 9시 50분께 담양군 대덕면 대산리 황도읍집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투숙객 고모(여·18), 정모(30), 송모(35), 류모(40)씨 등 4명이 숨지고 이모(35)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화재는 5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담양 패러글라이딩 훈련장을 찾았다가 펜션에 머물렀던 나주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회원들이 참변을 당했다.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재

학생·졸업생 26명은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담양 훈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고기판 위로 거세게 올라오는 숯불을 끄기 위해 화로에 물을 붓는 순간 고온으로 달궈진 기름 등으로 '핑' 소리와 함께 불길기 치솟았고 역새로 엮인 지붕에 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급속하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바비큐장은 목조 건물에 샌드위치 패넬로 이뤄진 벽, 역새 지붕 등 화재에 취약한 시설임에도, 소화기를 갖춰놓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소방당국 등은 파악했다. 20명이 넘게 머무른 공간이지만 비좁은 출구에 부실한 소화 설비 등도 신속한 대피를 힘들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도내 숙박시설 1486곳 등 다중이용시설 3만6424곳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해당 시설의 경우



6개월 이내 점검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서류상 점검에 그쳤고, 이 때도 부실한 소화 시설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겉핥기 점검'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도 위생 점검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담양=백희준·박기용 기자 bhj@

한·뉴질랜드 FTA 타결

쌀·고추·마늘 양허 제외

한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6개월 만에 전격 타결됐다.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낮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외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뉴질랜드는 14번째 FTA 체결국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 FTA 네트워크를 북미와 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대륙으로 확장하게 됐다. GDP(국내총생산)기준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하게 됐다.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9% 이상의 높은 수준의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7년 안에 관세를 100% 철폐한다. 주요 품목별로는 타이어(관세 5~12.5%)·세탁기(5%)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5%) 등 대부분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관세 철폐하고, 9.5%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천연꿀·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키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사는 광주 은 행복한 시민

150만 시민과 함께라면 어떤 꿈과 희망도 모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